안전보건 단신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문 사업」 제3차 기술자문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필리핀 현지에서 제3차 기술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3차 기술자문은 지난 10월 필리핀 노동고용부 정책실무자 초청연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필리핀 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원 이경용 정책연구팀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제도 구축을 위한 기술자문을 실시하였다. 금번 기술자문에서 김철호 조선업재해예방팀장(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이 조선업 재해예방 전략과 위험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필리핀 노동감독관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조선업 재해예방 기법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최근 필리핀에서 조선업 재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번 기술자문을 통하여 필리핀의 조선업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연구원 소식 · 동정

한국가스학회 공로상 수상

- 수 상 자 : 화학물질센터 이근원 팀장
- 수상내용 : 한국가스학회 공로상

한국안전학회 리스크분과 우수논문상 수상

- 수 상 자 : 안전연구실 김진현 차장
- 수상분야 : 학술논문
- 발표제목 : 리스크 평가를 중심으로 방법 등에 대한 고찰

한국산업위생학회 우수논문 발표상

- 수 상 자 : 재해통계분석팀 권오준과장
- 수상분야 : 학술논문
- 발표제목 : 근로환경조사결과를 이용한 위험요인 노출분석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최우수학술상 수상

- 수 상 자 : 정책연구팀 이관형연구위원
- 수상분야 : 학술논문
- 발표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안전보건 조사연구

안전인증센터 CS(Customer Satisfaction) – Star 시상

- 수 상 자 : 고재욱 주임(10월), 장승윤 주임(11월)
- 선정사유 : 맡은 분야에서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연구원 국제활동

ISO/TC146 국제규격 심의회의 참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장재길 분석실험팀장 및 권지운 연구원은 10월 14일부터 10월 20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ISO/TC146 국제규격 심의회의에 참석하였다.

ISO/TC146 국제규격 심의회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되어 있는 기술전문위원회 중 공기의 질(air quality)을 심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산업안전연구원은 국내 간사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금번 ISO/TC146 심의회의에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과 관련된 국제규격(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실시하였다. 심의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세부적인 국제규격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모임인 작업그룹(Working Group, WG)이 운영되었으며, 이중 WG1(asbestos fiber content), SC6(실내공기)중 WG4(asbestos mineral fiber) 분야의 국제규격(안) 심의에 참여하였다.

한-ILO 협력사업 라오스 현지기술자문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해동 원구원은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석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지기술자문을 실시하였다. 기술자문은 한-ILO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 중 라오스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발전과 산업재해 예방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박해동 연구원은 『National Workshop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with focus on Asbestos-related Risks』에 참석하여 "한국의 석면작업에 대한 위험성 관리 현황" 및 "C162시행 및 비준에 대한 한국의 경험"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석면취급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내 위험성 분석 및 석면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 기술자문을 실시했다. 금번 현지기술자문을 통하여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ILO C162) 시행 및 비준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라오스 석면안전관리 체계 수준 향상 및 국제협약 이행 발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일 : 2012년 12월 1일 | 발행인 : 박정선 | 편집인 : 박정선 | 발행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 격월간 | 부평, 마00004 (2012. 05. 21) | 032-5100-755 | http://oshri.kosha.or.kr

OSHRI Newslette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뉴스레터 | 2012. 12. No. 4 |
OSHRI Newsletter / No.4 December 2012

연구원장 메세지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평가'가 아니라 '개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후단 및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개정을 위해 국회 계류중)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법에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유해성에 대해서도 리스크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가 있다면 평소 미리미리 제거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성평가는 정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작업이나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현장에서 노·사가 수시로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들께서는 당장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떤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평가가 아니라 개선이며, 반드시 문제를 찾기 위한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상관 없이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위험성평가 도구와 방법은 대책제안점검표(Action checklist)를 활용한 WISE(Work Improvement Small Enterprise)와 같은 참여형 개선기법이 아닐까 합니다. 참여형 기법에서는 모범이 되는 사례와 개선 원칙이 대책제안점검표로서 제공되어 이 도구 하나로 자신의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개선대책을 바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개선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가지 과제는 WISE라는 기본형을 토대로 하여 각 직종에 맞도록 대책제안점검표를 수정 보완하여 각 사업장에 보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각 직능단체(예를 들어 미용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와 협업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처럼 어렵게 마련된 위험성평가제도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평가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 정 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된 안전보건공단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안전보건 단신

S마크 안전인증 10000호 수여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0월 25일(목) 충청남도 아산 소재 오성엘에스티(주)에서 LCD 판넬 시험 및 검사장비에 대한 S마크 안전인증 10000호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S마크 10000호를 수여받은 오성엘에스티(주)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해외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백헌기 공단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의 결함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S마크는 제품의 품질력 향상 및 해외수출 증대와 더불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많은 사업장에서 S마크 안전인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현재 연구원 안전인증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S마크 안전인증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및 부품류의 안전성 심사수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적용하여 심사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의인증 제도이다.

1997년 S마크 안전인증 제도가 도입된 이래 안전인증 제품은 높은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판매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자동화 부품 생산업체인 '오므론'의 관계자에 따르면, S마크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연간 120%의 매출 증가가 있었지만, 미취득 제품은 전년대비 74%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안전장치 생산업체인 '선광전자' 대표이사는 S마크 안전인증 취득 제품의 높은 품질과 안전성능 등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1년 사이에 판매량이 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9개의 해외 인증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S마크 인증 취득시 CE마크 등 수출에 필수적인 해외인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1년까지 163개사에서 957건의 CE마크를 취득하였다.

구미 불산누출 사고현장 작업환경 노출평가 및 근로자 건강유해도 평가

지난 9월 27일 구미4공단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정부종합대책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공단내 인근 사업장의 잔류불산 노출평가와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작업환경평가를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등 총12개팀의 노출평가팀을 구성, 구미4공단내 142개 사업장에서 303개의 공기중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는 불산을 흡착할 수 있는 흡착관을 시료채취펌프에 연결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지역인 생산공정과 사무실 등에서 채취하였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떤 시료에서도 분석장비의 검출한계(0.009 ppm) 이상의 불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또한 순천향구미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등과 함께 사고지역 공단 근로자 900여명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원은 불산 누출로 인한 근로자의 만성적인 건강영향에 대비하여, 노출 근로자들에 대한 중·장기적 건강위험 추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국제심포지엄「ISHSH 2012」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4(수)부터 15일(목)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 혜성관홀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연구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의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서울대학교 윤인섭 교수가「The current problems, their root causes and suggested solutions of chemical accidents in the domestic and world industries」라는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일본노동안전위생총합연구소 Yasuo Toyosawa 박사가「Current situation of risk management in construction and incident investigations in Japan」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뒤를 이어 한성대학교 박두용 교수가「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의 전략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고, 연구원에서는 권혁면 안전연구실장과 장재길 분석실험팀장이 각각「화학사고예방의 효율적 접근방법」과「석면 및 분석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한편 일본노동안전위생총합연구소 Yasuo Toyosawa 박사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높은 관심을 갖고, 향후 공동연구 수행과 심포지엄의 정례화를 제안하여 상호간 교류협력의 발판이 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안전보건 단신

직업병 감시체계 심포지엄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남부권 및 중부권 직업성암감시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일(금) LW컨벤션센터에서「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성과 및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2012년 직업성질환 예방과 감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부, 학계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 박정선 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및 김양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의 축사에 이어 직업성 감시체계 관련 3개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있었다.

'직업환경을 고려한 암 발생기전과 관리에 대한 접근법' 및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를 통한 리스크 추정',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운영성과와 그 활용'이라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건양대학교 손지웅 교수 및 연세대학교 오성수 교수, 관동대학교 송재석 교수, 정남순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운용중인 5개 감시체계(직성업 폐암 및 혈액암 감시체계, 중피종 감시체계, 주사침 손상 감시체계, 의료기관 간호사 감시체계)의 운영을 통해 이들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 분석, 관리, 정보 배포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의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유해요인 노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직업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특히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례발표 및 암예방특별법 입법내용은 질병의 추세를 파악하고 암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연구원은 1998년 직업성 피부질환 및 직업성 천식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1년부터 중부권과 남부권역별로 화학물질에 의한 폐암과 조혈기암을 대상으로 직업성 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직종별 사업장 중심의 감시체계로 의료기관 간호사 감시체계를 운용중이다.

「산업보건분석 세미나」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1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와 공동으로「산업보건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작업환경측정 분석회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분석자의 분석능력을 향상하고,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현장평가의 운영방향 등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11월 15일(목)에는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가 '산업보건 전문가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을,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원정일 교수가 '작업환경측정분야 종사자의 근로환경조사'를,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김부욱 연구원과 이종성 연구위원이 '작업장 6가 크롬 분석 및 공기 중 PAHs와 요 중 PAHs 대사산물 분석'을 주제로 차례로 발표하였다. 11월 16(금)에는 분석기기의 원리, 분석통계(분석결과 통계처리), 포집 및 분석의 원리 등 3개 세션으로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 조기홍 회장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현장평가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로 세미나가 마무리 되었다. 본 세미나는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의 방법 교육 및 운영방향 제시 등을 통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 및 분석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문기술세미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ILO워크숍 주제발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정선 원장은 11월 20(화)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열리는 한-ILO워크숍에 참석하여, 아시아 국가 노·사·정 대표를 대상으로「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연구원장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현황과 향후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아시아 국가간 안전보건 이슈의 긴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혁면 안전연구실장은「한국의 산업안전보건전략 수립」이란 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재해발생 주요 요인들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참가국 관계자들이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에 열린 한-ILO워크숍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참여적 접근방식"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아시아 8개 국가 노동관련 부처 노·사 정책 담당자 및 노사대표 30여명이 참석하여, PAOT 워크샵과 함께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이슈를 발표함으로써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인식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